

맥국(貊國)의 땅, 태백준령에 자리잡은 춘성군

취재: 곽삼섭 기자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댐과 호수로 이어진 종합관광지

태고때 맥국(貊國)의 땅이었던 춘성군은 천예의 자연자원과 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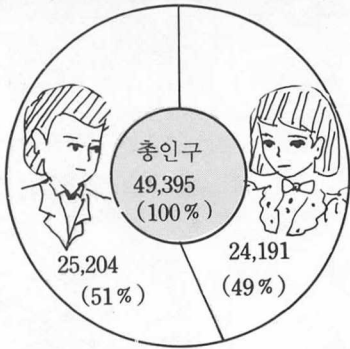
한 경관을 자랑하는 태백준령에 자리잡고 있다. 소양강과 북한강이 흐르고 있고,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댐 등 3개의 댐과 호수로 이어지고, 삼악산·오봉산·용화산 등으로 연계된 산자수려한 지역으로

서 주변에 선사시대의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종합관광지이다.

그중 소양댐은 이 지역을 상징하는 기상이 서려 있다고들 말한다. 29억톤의 담수량과 20만 kw/H의 발전을 하고 있으며, 댐의 높이가 123m이고 깊이 530m로서 1973년 10월 완공되었다. 소양댐에서 내설 약까지 64km의 물길을 따라 여객선이 오가는 정경이 그림같은 수운 관광의 요람지로 내륙의 바다라 불리운다.

또 도지정 기념물 제16호로 3개의 봉우리로 이어져 삼악산이라 불리는 산. 야트막하면서도 빼어난 설악준령을 닮았고, 웅장함이 오대산을 축소한 듯 수려할 따름이다. 홍국사·상원사 등 7개의 사찰과 삼악산성이 나열된 아기자기한 4km의 등산로를 따라 해발 654m의 정상에 오르면 탁트인 의암로가 발아래 펼쳐지고 안개속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춘천시가지가 한눈에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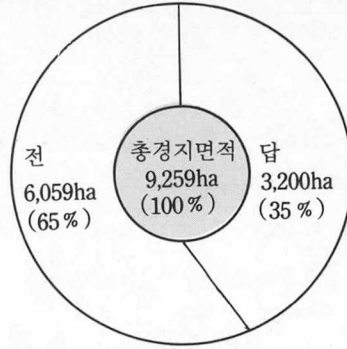
〈그림1〉'89년도 춘성군 남녀 인구비율 분포도

이다.

남이섬은 남이장군의 전설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북한강·청평호에 위치한 반달모양의 섬으로서 이 곳을 가리켜 「꿈과 낭만의 남이섬」이라 부른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조성된 종합관광지로 해마다 전국규모의 축제가 이 곳에서 열리기도 한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자랑이 있다. 향어와 송어인데, 맛도 좋지만 영양가도 많아서 성인병 예방은 물론 여성들의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소문이다.

이곳은 특히, 산이 깊고 물이 맑



〈그림2〉 춘성군 경지면적 비율

아 인심이 후하고 무공해의 자연속에서 온갖 야생화의 밀원으로 만든 토종꿀은 영약으로도 손꼽힌다. 또 메밀꽃으로 만든 막국수의 맛과 칩을 으깨어 갈분으로 만든 담백한 맛의 칩국수의 향기도 역시 일품이다.

1946년 지역분할로 춘성군으로 개칭, 현재 8개면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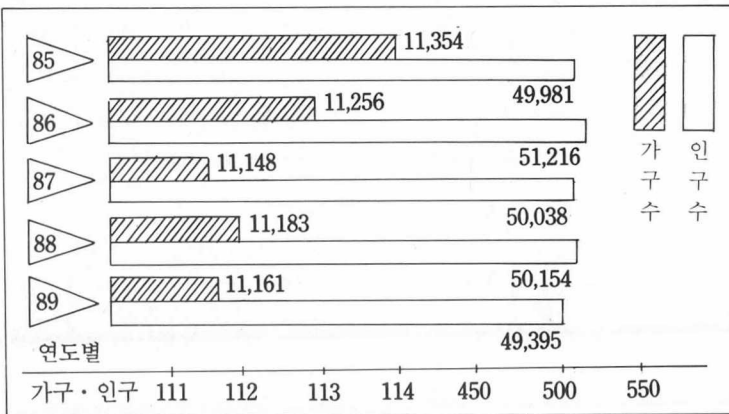
춘성군은 1945년 해방과 동시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사내면 5개리, 사

북면 1개리는 북한이 관할하게 되어 남한은 1읍8개면을 행정구역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조 태종 13년에 이름지어졌던 춘천군이 1946년 지역분할로 춘성군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신남면과 동내면을 합해 신동면이 되기도 했다.

그후 1954년 수복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11월 15일에 사북면·북산면의 일부 리가 타 지역으로 분할되기도 했다.

1965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인 춘천댐 준공으로 농경지 821ha가 수몰되고 했으며, 1973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신동면·동산면 일부가 춘천시·홍천군으로 편입되었다. 또 소양댐 건설로 인한 북산면의 일부 리가 수몰되기도 했으며, 현재 사북면·서면·신북면·북산면·동면·신동면·동산면·남면 등 8개면을 행정구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북면·사북면·북산면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춘성군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근교의 교통요충지임을 상기하듯 춘성군민의 문화적 수준도 타도시민에 못지않다는 지적이다. 1시간 30여분이면 서울간 상류할 수 있고 도시속에 찌들은 사람들이 한번쯤 찾아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같은 지리적·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국토계획상 지역의 개발보다는 보전이나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난 30여년간의 개발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낙후되



〈그림3〉 연도별 춘성군 인구 및 가구수 변동현황

이었다.

그러던중 80년대 후반부터 이와 같은 개발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북방정책과 남북교류가 전개되면서 접전지역이라는 불리한 개발여건에서 조금씩 탈피, 동해안시대를 열러는 움직임이 태동함에 따라 묶여 있던 성장 잠재력의 발현이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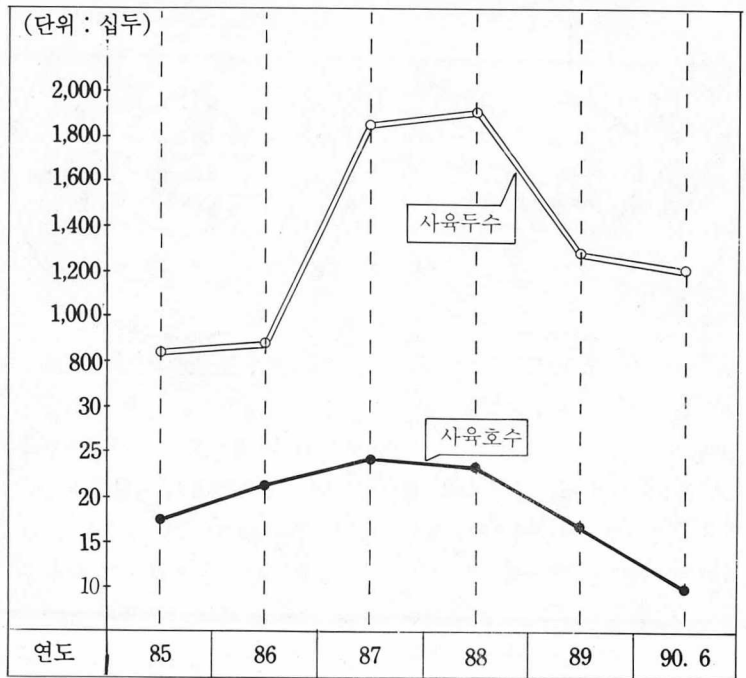
1차산업, 개방화·국제화 물결에 따라 구조적 취약점 많아

개방화·국제화의 물결과 지방화를 맞아야 하는 지역양돈업은 그 구조적인 면에서 여러 취약점을 안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춘성군은 면적이 넓으나 산림이 많고 인구가 타지역보다 적은 편에 속한다. 면적은 강원도 전체의 4% 내외, 인구는 남자가 2만5천2백명, 여자가 2만4천1백명, 총 4만9천3백95명으로 가구당 4.4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호당 경지규모는 타지역보다 조금 크나 논보다 밭의 의존도가 타군의 평균보다 높으며, 경지이용율은 대단히 낮은 편에 속한다. 경지면적의 비율을 보면 총 9,259ha에 전(田)이 6,059ha로 전체경지면적의 65%, 답은 3,200ha로 3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성군은 이러한 경지면적에 대한 일정한 소득보다 농외소득 증대와 농축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했다. 강원대



〈그림4〉 연도별 춘성군 돼지사육 호수 및 사육두수 추이도

농촌개발연구소가 춘성군 남산면 창촌지구 농공단지 주민 2백7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 63.7%가 취업 기회확대를 기대해 농공단지가 조성된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공단지가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농가도 24%나 되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농공단지 유치가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농업환경을 파괴하며, 희망 입주업체가 입주하지 않아 실제 소득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지역 농민들이 희망하는 입주업체는 농축산물 가공업체(69%)이나 창촌농공단

지의 경우 14개업체중 전기·전자 6개업체, 기계·금속 3개업체, 화공 2개업체, 봉제·섬유 각 1개업체, 식품1개업체로 농민들의 기대와는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 전지역을 볼 때 복합된 지형에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 지역개발이 낙후돼 왔으나, 최근 춘성군은 동해안권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의 활성화가 두드러져 1차산업에 대한 투자여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춘성군은 또, 산지가 많기 때문에 축산경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 가운데 양돈업은 지역의 축산발전을 위해 굳건한 터전을 마련, 열악한 구조속에서 앞서가는 산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어느지역 못지않게 양돈업의 성장

〈표1〉 연도별 춘성군 축종별 사육호수 및 두수 현황

구 분	돼 지	한 우	젓 소	닭	
85	호 수	176	5,278	240	574
	두 수	8,306	18,761	1,722	124,554
86	호 수	218	4,822	211	582
	두 수	8,628	17,773	1,872	104,716
87	호 수	247	4,284	197	641
	두 수	18,514	14,471	2,181	83,990
88	호 수	239	3,357	173	644
	두 수	18,819	11,058	2,605	107,968
89	호 수	163	3,130	208	508
	두 수	13,109	10,792	2,525	116,904
90. 6	호 수	125	3,220	185	595
	두 수	12,910	11,450	2,557	160,488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농가가 사라지는 등 전업화 추세가 가시화 되고 있어 양돈업도 이제 전문경영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 6월 현재 돼지사육두수는 1만2천9백여두로 나타나

춘성군의 돼지사육가구수 및 사육두수를 보면 양돈업의 내적인 성장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90년 6월 현재 1백25가구에 1만2천9백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황의 늪에 빠졌던 '88년의 2백39가구에 1만8천8백두보다 크게 줄은 수치이다. 이러한 사육가구수 및 사육두수 감소현상은 여건 변화에 따른 순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분뇨처리문제, 인력난 등으로 전업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한 눈에 짐작할 수 있다.

본회 춘천춘성지부에 따르면 「춘성군은 전업화 추세에 따라 소규모

양돈농가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가족노동중심으로 적정규모 사육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중심의 규모변화에 대해 예견을 말하기도 했다.

춘성지역에는 종돈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종돈구입에 따른 손실 또한 막대하다. 현재 정진농장(대표:정화진)만 종돈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몇몇 전업규모농가들은 종돈개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팔당·대청호 주변 상수원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분뇨처리문제가 환경오염의 주범임에는 두말할 여지가 없게 됐다. 춘성군도 간접적인 영향권에서 악재요인으로 대두, 양돈인들은 생업의 계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구조개선 등 정부의 지원책으로 양돈업 발전 모색해야

이와같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춘성지역의 발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돈인을 비롯한 1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생산자들의 새로운 응집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크게 1차산업 전체를 볼 때 농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의미하나, 물가당국이 생각하는 물가안정과 마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 특히 산지유통의 개선과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당국의 과감한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병행해 취약한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정책의 확충, 양돈업이라면 새로운 사양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경영방법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같은 분위기가 성숙되어야만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양돈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고, 침체된 사양기술과 쇠약한 생산기반을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는 경험·기술·자본·지식 등을 하나로 엮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산자단체인 협회의 조직, 연구기관, 지역의 대학, 그리고 행정기관이 서로 협조하고 노력한다면 지금의 양돈산업이 처하고 있는 수입개방압력에 대한 어려움도 반드시 타개되리라 확신한다.

*